

효성 '2개 지주사'로 개편... '형제 경영' → '독립 경영'



효성그룹이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한다.

신설 지주회사는 조현상 부회장이 이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제 경영'으로 그룹을 이끌어온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지주회사 재편을 계기로 독립 경영에 나서며 사실상 계열 분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상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효성 토요타 등 6개사에 대한 출자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는 분할 계획을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은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분할 승인절차를 거친 뒤 7월 1일자로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할 예정이다.

기존 지주사는 조현준 회장이 그대로 맡고, 신설 지주사는 조현상 부회장이 대표를 맡게 된다.

6월 임시주총 후 7월 인적분할... 조현상 부회장, 신설 지주회사 맡아 형제간 계열 분리 수순... "미래 성장·책임경영 통해 주주가치 제고"

효성신설지주의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효성 0.82 대 효성신설지주 0.18이다.

조현상 부회장이 독립 경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부문 등을 포함하면 신설지주의 매출 규모는 7조원대, 글로벌 거점 숫자는 90여곳에 이른다.

효성은 지주회사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사 분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효성은 201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에 분할이 이뤄지면 각 지주회사는 새로운 이사진을 꾸려 독립경영에 나서게 된다.

조현준 회장은 존속회사를 이끌며 기존 사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회사를 맡아 첨단소재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회장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상 부회장은 3남이다. 2021년 조현준 회장이 동업인(총수)으로 지정받고, 조현상 부회장이 총괄사장을 맡은 지 4년만에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현재의 '투톱 체제'가 구축됐다.

두 사람이 보유한 효성 지분은 작년 9월 말 기준 21.94%와 21.42%로 비슷한 수준이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10.14%를 가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각자 주력했던 사업 분야가 달랐던 만큼 형제간 계열 분리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지주회사 재편을 계기로 궁극적으로는 계열 분리가 이뤄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설 지주사인 효성신설지주는 미래 첨단소재 솔루션 분야에서 효성첨단소재를 주축으로 글로벌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 기회를 확보해 간다는 전략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

연구개발 중심의 다양한 신사업과 인수·합병 기회를 모색해 그룹 규모를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설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조현상 부회장(대표이사),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대표이사), 신덕수 ㈜효성 전무를 사내이사로,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 김진수 ㈜투톱 고문을 사외이사로 각각 내정했다.

존속회사인 ㈜효성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티앤에스 등 자회사의 핵심 사업 혁신과 성장잠재력 극대화,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존속회사의 연간 매출 규모는 19조원 수준이다. 한편, 효성은 다음 달 1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을 사내이사에 재선임하고 안건 등을 상정한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이다. 데이터 솔루션 분야에서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디지털전환(DX), 인공지능(AI) 사업을 활용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룹 내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아울러 국내외 공급관리(SCM) 솔루션 관련 법인을 통해 글로벌 SCM 솔루션 사업도 이끌 방침이다. 특히 산하 사업회사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파크 일곡공원' 분양 선전

1순위 경쟁률 평균 2.7대 1... 84㎡A타입 7.43대 1

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하는 '위파크 일곡공원'의 청약 1순위 경쟁률이 평균 2.7대 1을 기록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797가구 모집에 총 2149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전용면적별로는 84㎡A타입이 191가구 모집에 1516명이 몰려 7.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84㎡B타입은 307가구 모집에 411명이 청약해 1.23대 1을 기록했다. 대형평수인 133㎡는 미달됐다.

총 1004가구 규모의 위파크 일곡공원은 임대와 특별공급을 제외한 ▲84㎡ 569가구 ▲138㎡228가구를 일반 분양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나해부터 계속 이어진 경기 부진과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에 대한 관망세가 크게 높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선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규모 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라는 장점에 더해 올해 1월 광주지역 평균 분양가(1855만 원)보다 3.3㎡ 당 약 200만 원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한 효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위파크 일곡공원'은 지난달 청약일정 확정에 견본주택을 열고, 고객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조경과 공용공간 등 상품성을 끌어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위파크일곡공원은 100만㎡에 달하는 일곡공원에 들어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로 주택단지와 대규모 공원이 공존한다.

특히 단지 중앙 언덕이 조성되며 주변 조경수들은 유럽풍의 느낌을 준다. 단지 내부는 유명 작가들이 직접 참여해 흙과 물, 돌이 어우러지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물놀이가 가능한 어린이 놀이터도 들어선다.

단지 내부는 미세먼지 저감능력이 우수한 전나무 숲이 조성되며 단지 내 산책로는 초대형 공원과 연결된다. 초대형 공원에는 숲속 놀이공간과 캠핑장도 설치된다.

단지는 일곡지구 생활권으로 변경 1km 내 도로로 일동초·중, 일곡초·중, 일신초·중, 국제고등학교 등 13개 학교 통학이 가능하다.

한편 위파크 일곡공원 청약 당첨자는 오는 27일 발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고객들의 의견 적극 경청한다"

제8기 '톡톡자문단' 발대식 개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본점에서 '제8기 톡톡(Talk-Talk)자문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 '톡톡(Talk-Talk)자문단'은 광주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고객중심 경영 실천, 상품·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비대면 활동단체로, 지난 2017년 1기 활동을 시작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8기 '톡톡 자문단'은 광주은행 금융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대로 구성된 MZ세대부터 40대 고객까지 총 8명의 자문위원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4차례의 정기회의를 열고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과정,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제도개선 및 도입에 대한 고객들의 시각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기회의는 자문위원들의 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광주은행은 자문단 정기회의에서 발표

된 의견을 금융서비스 개발 및 경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광주은행 내부 임직원들의 시각과 다른 시선으로 개선사항 및 다른 은행과의 비교사항 등을 가감없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진정한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와 권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킹사이즈 이불도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번에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출시

삼성전자는 24일부터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사진〉 판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25kg 용량 드럼 세탁기와 15kg 용량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하나로 합친 제품이다.

국내 최대 건조 용량의 올인원 세탁건조기 제품으로 킹사이즈 이불 빨래도 가능하며, 세탁 후 건조를 위해 세탁물을 옮길 필요가 없다.

대용량 열교환기에서 따뜻한 바람을 순환시키는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를 적용해 건조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셔츠 약 17장 수준인 3kg 세탁물은 세탁부터 건조까지 99분 만에 가능하다. 기존 히터 방식의 콘덴싱 타입 건조기와 비교해 건조시간을 최대 60% 절약한다.

일반 건조 시 드럼 내부 최고 온도는 60도를 넘지 않아 건조하는 옷감이 줄어들거나 손상될 염려도 적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설치 공간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설치할 때 대비 약 40% 절약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대화면 터치 디스플레이 'AI 허브'를 통해 타 기기 연동과 멀티미디어 이용 등이 가능하고, AI 기반 기능으로 맞춤 세탁을 지원한다.

새로 선보이는 AI 허브는 기존 화면 대비 면적이 9배 커진 7형 풀 터치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적용했다.

AI 허브에서 스마트싱스(Smart Things)로 연결된 다른 가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빅스비를 이용해 음성 제어도 가능하다. 최적의 에너지 효율로 전기 사용량을 아껴주는 'AI 절약 모드', 마찰을 줄여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코스' 등 환경을 고려한 기능도 탑재했다.

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비스포크

AI 콤보는 설치 공간과 에너지, 시간을 모두 줄여 주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세탁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삼성 가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 지난해 영업손실 85% 만회

4조5691억 기록...매출 88조2051억으로 23.8% 늘어

한전은 지난해 4조56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전년도 영업손실 32조 6551억원 대비 28조 860억원 줄어 들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총 매출액은 88조2051억원, 영업비용은 92조7742억원으로 총 4조56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에 견줘 매출액은 23.8% 증가, 영업비용은 10.7% 감소하면서 전년 영업손실(32조 6551억원) 대비 영업손실폭을 85.9%까지 줄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실 감소는 지난해 상반기 전기요금을 세 차례 인상하면서 총 매출액이 16조 9472억원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은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연료비, 전력구입비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11조 1388억원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한전의 전기 판매량은 546.0TWh로 전년(547.9)보다 0.4% 감소했지만, 지난해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판매 단가는 120.5원/kWh에서 152.8원/kWh로 26.8% 상승하면서 전기 판매 수익만 16조7558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국제 연료 가격 하락으로 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도 전년 대비 각각 7조6907억원, 3조680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관계자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재무구조 개선 및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정부와 협의하여 45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로또복권

(제110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9	26	37	39	44	27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일치					1,957,990,849	14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7,590,056	96
3	5개 숫자일치					1,415,757	3,227
4	4개 숫자일치					50,000	157,579
5	3개 숫자일치					5,000	2,572,268